



진실한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봄이 돼서 좀 따뜻하니까 자리가 좁아도 마음이 한결 낫습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또 절을 짓게 돼서 감사하구요. 허허하... 여러분도 마음을 좋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봐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그대로 직접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고, 또 스님네들이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과거의 방편을 쓰시니까 현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래서 큰 걱정이 됩니다. 세계를 다 따져봐도, 전 우주를 다 따져봐도 우리는 한 생명이며 모두 한 진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먼 데서 찾지 마시고 뭣났든 잘났든 내가 나온 자리에서 바로 나를 찾으세요. 아랫눈썹과 윗눈썹이 마주치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즉 육신과 정신이 둘이 아니게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건만 너무 가까워서 찾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몸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고 타의에서 찾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 하구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느냐. 각 개체의 소인자들을 다 만나기 위해 굽이굽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봐도... 이 여러분 육체 속을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정신계가 비록만하게 축소돼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진흙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 온통 난리일 겁니다. 세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찾으러 거길 들어갔을 때에, 굽이굽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흙탕물에 빠져 가면서 걷고 할 때에 그것을 고(苦)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굽이굽이 넘어가면서 닦쳐오는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굽이굽이 닦쳐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비유했듯이 이 속에 들어가서 굽이굽이 걷고, 빠지고, 나오고 온통 이렇게 돌아치는 이 경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세계를 찾아서 가는 길이지.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는 가운데 중세계에서 살면서 상세계로 치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세계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고, 하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여러분한테 어떠한

게 앞에 닦치든 또는 안에서 일어나든, 모든 것을 그 나오는 자리에다가 내려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 동물에게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식처다 이겁니다. 생명, 모습, 의식들이 하는 농간이다 이겁니다. 이 의식들이 모두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그 억만 가지, 아니, 헤아릴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니 그것을 팔자 운명이니 뭐니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 속에다 다시 내려. 다시 놓으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현재 내가 거기다가 뇌서 입력하는 것만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드렸지만 듣기는 들었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대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를 따르되 믿지는 마라. 너를 먼저 알아야 부처의 마음도 알고, 몸은 공체(共體)로서 천백억화신으로 나뉘는 도리도 알 수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겪어야 할 문제가 뭐냐. 그것이 지금 우리 생활에서 겪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돌로 보지 말고 거기다 놓고 놓고 또 가고, 또 놓고 또 가고 한다면, 바로 현연히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면, 아니, 놓는다는 말도 붙지 않습니다. 뭐, 놓는다 안 놓는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왜냐하면, 저 나무를 보셨죠? 뿌리가 워 줄기하고 그냥 맞붙어 있어요. 흙이 덮여서 가려져 있지만 맞붙어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흙이라는 무명에 가려서 뿌리를 못 보게 되고, 인간은 자기의 관습, 욕심, 착이라는 그 무명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본다고 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든 고난을, 자성의 고난을 다 겪고 나면 현연히 연꽃이 피듯이... 진흙 땅에서 연꽃이 핀다고 했죠? 저런 진흙 땅에서 연꽃이 피는 거야 누구냐고 보고 누구냐고 말하고 누구냐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고 한 거죠. 마음이 체가 없는데 물을 건덕지가 있어야 묻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묻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관습과 집착과 욕심과 애정과 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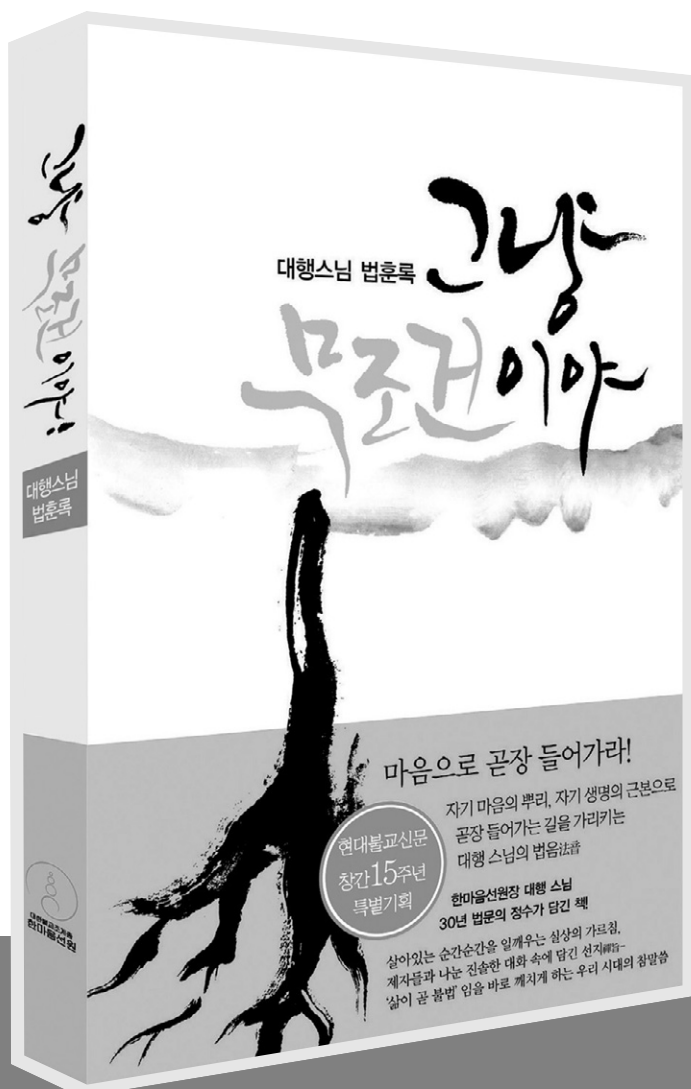
이런 모든 게 쌓여서 연꽃이 피지 못하고 자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진흙 땅에서 연꽃이 피어도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는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인간의 꽃이, 즉 마음이 현연히 피어나면 그 꽃이 바로 마음의 연꽃입니다. 이 마음의 연꽃이 피면 그것을 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연꽃은, 즉 육근(六根), 육진(六塵), 이렇게 할 때, 육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연꽃을 참나라고 이름해서 붙이는 거죠. 참나를 찾는 데에 그 방편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진(漏盡)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일곱 발자국을 떼었는데 한 발자국 땀 때마다 연꽃이 발 밑에 피어나서 그걸 밟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을 때에, 즉 말하자면 응무입니다. 내가 이 발자국을 떼어 놔야겠다 하고 떼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갈 때가 되면 그냥 그냥 갑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하나하나 떼어 놓을 때, 뒷 발자국은 없어지면서 앞 발자국 떼어 놓을 때마다 그것이 응무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법이다 이겁니다.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 있는 한 개체가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그러니까 연꽃으로 비유하자면 '내 마음이 연꽃이 피어나듯이 움죽 거린다.' 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내 마음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움죽거리다 이겁니다. 움죽거리라는 연꽃이란 애갑니다. 지는 연꽃이 아니라 움죽거리라는 연꽃! 그래서 연꽃이 피게 되면 지는 것도 없고 피는 것도 없는 것이 연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꽃을 밟고 일곱 발자국을 나왔다.' 이러는 건,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본 뿌리, 즉 불종(佛種)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는다고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또, 타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찾아야 하는 거죠. 내 몸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갑니까, 그냥 놓고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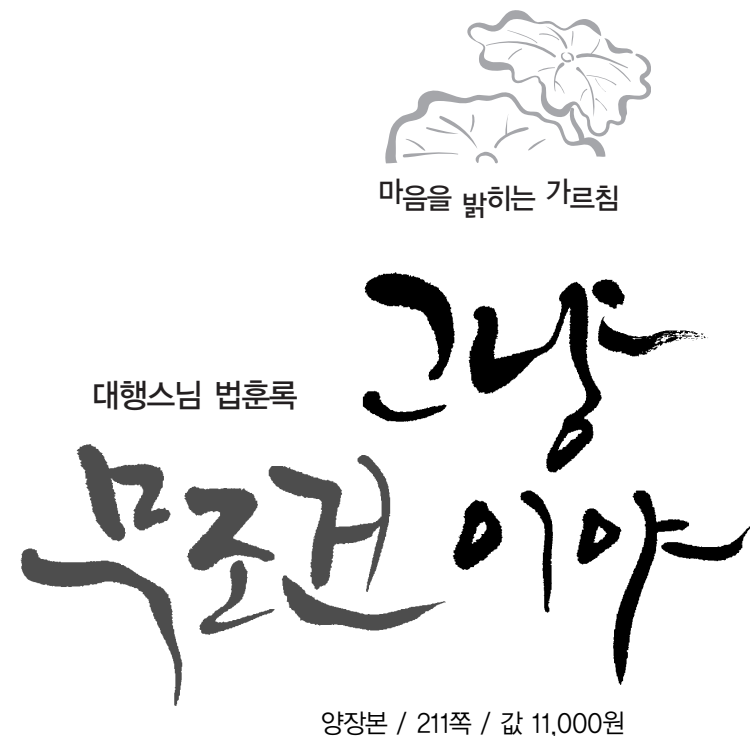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公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믿으세요

29면에서 계속

이, 마음은 아무 요동이 없이 그냥 발자국을 떼어 놓죠.

살림살이도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왜? 살림살이도 그러하니가 말입니다. 이 발자국 떼어 놓는 것처럼 순간 보고 흘러가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흘러가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흘러가고 이것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내 내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붙들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게 낡지질 않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짢아도 한 찰나, 좋아도 한 찰나인 것을 좋다고 붙들고 즐겁다고 야단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또 언짢으면 언짢다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면,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럴 때, 그 과정을 내내 붙들고 그냥, 어떡하면 빠져 나갈까 하고 온통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그저 하나뿐이 아니라 일체를 다요.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손가락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기에 그거를 몽땅 놔 버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거기다 놓고 그냥 뛰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도를 다 해결하시고 참 고맙다고 하셔서 당신한테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지 않아요. 흠물이라면 흠물대로 놔 버려야 새 물은 또 쓸 텐데, 흠물 담아진 것을 그냥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새 물이 들어올 사이가 없죠.

이거 심각한 얘입니다. 우리 사는 데만 심각한 게 아니라 세계생생에 어떠한 벗어날 수 있는 가 하는 것도 또 심각하구요. 우리 모습을 이대로만 가지고 있을까, 요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가지고 나올까 하는 것도 심각하구요. 그 한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모두 심각하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온통 여러 가지를 다 찾는데, 그 해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다 바깥으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씀니까, 그 이름들을? 이름을 아무리 불러 봤자 그건 헛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수행해서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부터 찾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찾고 여러 가지 일체 만물의 마음을 다 찾는 셈이죠.

그러니 이 안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자기하고 인연이 돼서 바로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에 다 있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가 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몸 속의 개체에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속의 자체를 모두 조복받기 위해서 굽이굽이를 전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찾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입니다. 작으면 내가 작아지고, 크면 내가 커지고 그래서 똑같이 맞추어야 이게 동글어지죠. 그래서 크고 작은 걸 다 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가다 보면 모두가 바로 한마음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해 주는데 그게 한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이지만은 깨달은 부처님들의 생각은 한생각입니다. 한생각! 한생각이

구나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소인이 하는 거고, 허허허... 대불(大佛)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응무로서, 그냥 생존해 살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응무공법(應無公法)이죠. 그러니까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둘이 아니게끔, 무의 법에서 유의 법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아만이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을 알아서 자유자재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자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체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더

가지고 부모를 배척하고 안 보더라도.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 년이 지나니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저희가 무척 잘못됐노라고 사과를 하고, 이제는 어머니 따라서 종교도 믿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느냐고 하니가 발빠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주 가산도 탕진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남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보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 말과 뜻과 행을 보고 따르라. 그러면 거기서 들은 것이 지금 사람 사는 진리와 같으면 따르라 이거죠. 어느 사람이 교수인데 자녀들을 군에도 보내지 않고 그러는 종교를 믿었대요. 군에도 보내지 않고 어디 뭐 특별한 데를 내보내지도 않는 종교가 있대요. 난 모

고, 삼재가 걸렸다 하면 야단들이고 온통 뭐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몰라서 애긴 다 못해요. 그런데 지금 살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그런 거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보름, 백일 동안을 기도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인은 기도드리러 가고 남편하고 애들은 자기가 밥해 먹고 일 나가고, 이리다 보니까 가정파탄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진실하게 믿어야 하나. 나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 찾을 권리가 있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예 꿈에라도 형식적인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믿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씩이 뿌리들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믿어 믿어라 이래서 믿는 겁니까, 응? 자기 종성(種性)을 진정으로 믿어야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줄 사람도 없고, 똥 누고 밥 먹고 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제각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공생(共生)이요, 공심(公心)이요, 바로 공체(公體)요, 공용(公用)이요, 공식화(公食化)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이제 불이 났다든지 싸움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소인 말은 군인들은 해군이면 해군,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 다 맡은 바대로 소속이 돼 가지곤, 딱 부르면 그냥 쪽 모이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한테 있어서 자성불(自性佛)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달리는 생각 마시고 오로지 그거부터 실천을 하시도록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듣고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이 다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데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보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전부 자기 속에서 하게 하는 거지, 자기 중심에서 하게 되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를 알면 무(無)의 법도 유(有)의 법도 능수능란하게 모두 할 수 있어요.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6년 4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잡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떼어 놓죠?
 살림살이도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좋아도 한 찰나, 언짢아도 한 찰나인 것을
 좋으면 좋다고 붙들고 야단이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늘어지니
 그게 낡지질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 생명들의 의식도 하나로, 부처님의 그 마음 하나로 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조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들이 전부 보살이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어떤 때는 더듬더듬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말을 해아만이 여러분이 잘 알아 들을 수 있고 잘 집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잘 집어 먹지 않으면 소화 안 되고, 또 반쯤 집어 먹다 보면 그냥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안 먹고 말아 버리거든요. 이러니 어떡합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집어 먹어서 소화가 잘되게 해야, 모든 개체가 하나로 귀합이 되게 조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내가 한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분들의 생각은 한 생각이 두 생각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서 하나가 돼 버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야 누

어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마는 눈 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울게 끌고 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는 부도가 관을 하게 되면 부도가 생각하는 대로 그 자체들에게 저절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마음으로 관을 열심히 하세요. 그 상대방이 나갈 정도라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줘도 안 듣는 거죠. 그럴 때에 남이 한번 할 거 두 번 씩 세 번씩 한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절친하다 하는 가설도 있구요. 가설도 천차만별이지만은 그래도 자식이라는 가설이 제일 가깝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요... 마음의 가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 보면 "어머니, 제가 속을 많이 썩었죠" 하면서 저절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어떤 분이 말하는데, 자식이 아주 거북한 종교를 믿어

르는데 말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선 자신들을 공부도 안 시켰죠. 군대도 안 보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렇게 위에서 한 번 자살을 하니가 그 자식들도 자살을 하고 부인 하나만 남았어요. 말지도 않은 이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아예 절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입산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족이 다 그냥 말랑한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붙잡아 있지 않느냐는 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고통을 덜고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좀 살자, 중세제라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알아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살아 보자 하는 것도 종교를 믿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가는 거 보니까요, 일일이 날짜를 봐서 이사를 가고, 팔자 운명을 보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mm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대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록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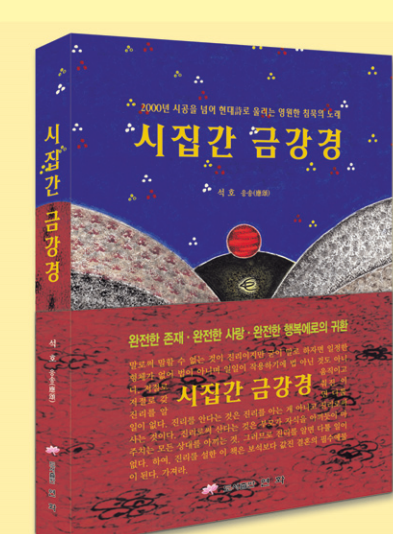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자체 기둥 110×90×400 / 다리 80×35 / 종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 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금강경이 시집갔다?

화제의 책 **시집간 금강경**



음 송: 석호스님
 신국판 359쪽
 값: 15,000원
 도서출판 연 화계

완전한 존재(無相), 완전한 사랑(無住),
 완전한 행복(妙有)에로의 귀환!

단 한 번의 정독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하면 단연 석호스님의 **〈시집간 금강경〉**입니다. 진리는 잠을 수 없지만 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 정독하십시오

〈전국 서점 및 인터넷서점 절찬 판매중〉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적하수오' 목목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목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원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목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²(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목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광면 흑석1리 368